내가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독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믿어 달라고 한다면, 미치광이의 잠꼬대쯤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 내가 정말 죽게 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뿐이다. 아무튼 나는 지금부터 극히 가상적인 일련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사설도 덧붙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고 한다. 그것이 결국 나를 공포로 빠뜨리고, 번민을 안겨다 주었으며, 끝내는 파멸로 몰아넣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나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다. 내게는 오직 공포뿐인 사건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미치광이의 괴담으로만 여겨질 것이다. 마침내는 내 악몽조차도 흔히 있는 시시한 사건으로 넘겨 버리는 지혜의 소유자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나보다는 훨씬 논리적이고 침착한 그가 내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인과 관계가 통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일 뿐이라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의 눈에 뛸 만큼 온순하고 솔직한 기질이 있었다. 마음이 너무도 여려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였다. 특히 동물을 좋아해, 부모님은 애완 동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 주셨다. 나는 그 동물들과 시간을 보냈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줄 때 가장 행복했다. 이 특이한 성격은 나이를 먹어도 한층 더해져,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오로지 동물과 노는 것만이 제일 즐겁고 행복했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가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것이다. 동물들의 애정은 앞뒤를 따지지 않는 자기희생적이다. 인간들이 계산적 우정과 경박한 성실을 여러 번 겪어 본 사람이라면, 동물의 사심없는 애정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다행히 아내의 성품도 나와 비슷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귀여운 애완동물을 여럿 구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중 고양이는 몸집이 무척 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녀석으로, 온몸이 새까맣고 게다가 놀랄 만큼 영리했다. 미신을 믿는 아내는 영리한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의 화신이라며, 예부터 전해오는 얘기를 곧잘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미신을 믿었던 건 아니었다. 나 또한 그 얘기가 우연히 떠올랐을 뿐이다. 이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내가 특히 귀여워하는 놀이 친구였다. 으레 내가 먹이를 주었으며, 집 안 어디에서 든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할 때도 쫓아 나오려고 해서, 그것을 막는데 애를 태울 정도였다. 플로트와의 우정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다. 그 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털어놓기 부끄러운 음주벽 때문에 전 날의 형태는 떠올리지 못할 만큼 악화돼 가고 있었다. 나날이 변덕이 심해져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휘둘렀다. 물론 동물들도 이러한 주인의 변화를 느꼈다. 나는 차츰 동물 돌보는 일을 멀리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아직 애정이 남아 있었다. 토끼, 원숭이, 개들이 반가워하며 내 곁에 다가오면 여지없이 그들을 걷어차곤 했다. 그럴수록 내 병은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늙어 까다로워진 플루토까지 나의 음주벽을 여지없이 당하게 되었다. 어느날 밤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나는 플루토가 나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그러자 그 놈이 놀란 듯 내 손목을 할퀴어 버렸다

순간 나는 악마와도 같은 분노가 폭발하여 이성을 잃어버렸다. 원래의 순한 영혼은 단숨에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고, 포악한 증오가 온몸을 떨게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냈다. 그러고는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을 즐기듯이 태연하게 천천히 도려냈다. 이 무섭고 잔인한 행위를 고백하려고 하니,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해지며 몸이 떨려온다. 어느 정도 취기가 진정된 이튿날 아침, 이성을 되찾은 나는 내가 저지른 포악에 대해 공포와 회한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영혼까지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폭음으로 세월을 보내며, 그 죄악에 대한 모든 기억을 완전히 술 속에 파묻어 버렸다. 고양이의 상처가 조금씩 나아졌다. 도려낸 뻥 뚫린 눈의 구멍은 분명 흉측했지만 더 이상 회한을 갖지 않았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두려워하며 재빨리 숨었다. 달라진 고양이의 태도에 처음에는 조금 미안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도 곧 분노로 바뀌어, 끝내 치유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고 말았다. 짓궂은 악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간의 잔인한 근성에 대해서 철학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근성이야 말로 인간의 마음에 숨어있는 원초적 본능의 하나이며,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근원적 감정이다.

나는 그것을 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또 반복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법률의 제재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싶은 욕구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악한 성정은 감정이 나를 파멸로 끌어들였다.